

# 10만 년 전 동굴벽화부터 변화무쌍 현대미술까지...짜릿한 예술여행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체를 장식하거나 매장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물감을 만들어 세상을 의도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예술이 세상을 어떻게 형성하고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망하고 분석한 책이 나왔다. 영국의 미술평론가이자 작가인 살럿 밀린스가 펴낸 '예술의 역사'는 시공간을 뛰어넘은 예술가와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표현하고 연결하고 매혹하다'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10만년 전 동굴벽화부터 다채롭고도 변화무쌍한 현대미술까지를 아우른다.

현 인류가 살았던 동굴에서도 조각품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매머드 상아와 돌에 새겨진 '사자인간'은 4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약 2만 5000년 전 석회암으로 만든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가슴과 허벅지 큰 여성을 형상화했다.

책은 모두 40개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최초의 흔적'부터 마지막 장 '저항으로서의 예술'까지 예술의 역사를 집약했다.

2장 '이야기가 펼쳐지다'에서는 서사 예술의 초기의 사례를 만날 수 있다. '우루크 화병'은 오늘날의 연재만화와 같은 서사를 지니고 있어 흥미롭다. 기원전 3300년 경 메소포타미아 우루크에서는 도시의 수호 여신으로 이난다를 추앙했다. 사원 석고에는 우르크 통치자가 화려하게 장식된 화병을 보

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 화병은 숭배와 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여러 층위의 이미지로 분기된다.

저자가 '홍내쟁이'라는 장으로 이름 붙인 4장은 중국 진시황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진시황이 죽자 그를 사후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황실 근위대가 만들어졌다. 테라코타로 구현된 실물 크기의 병사들은 손에 창을 들고 방어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전의 통치자들과 달리 진시황은 테라코타 모형을 고안했는데 점토에 모래를 섞어 불에 구웠다.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기독교는 300년밖에 되지 않은 신흥종교였다. 성경은 많은 서사와 모티프의 원천이었으며, 초기 기독교 미술은 고전 회화와 유사했다. 4세기경에는 인도에서 신앙체계를 갖춘 예술활동이 성장했고 몸바이 아전타에 암벽을 깎아 기도처와 수도원이 만들어졌다. 특히 아전타에는 30여 개의 동굴이 있고 이곳은 약 600년에 걸쳐 조성되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된 르네상스는 200년 이상 지속된 예술 혁신운동이었다. 인본주의 성행과 부의 증가로 예술은 경쟁체제를 갖춰 신화부터 인체 조각에 이르는 다양한 예술이 번성했다.

이후 유럽은 고전적인 전통, 교수법을 위시한 아카데미 미술이 성행했다. 규율과 질서가 중요했으며 런던 왕립아카데미, 파리 살롱전은 예술가들의 지향점이 됐다. 아카데미가 주도한 예술계에서 여성의 참여가 제한된 데다 자신의 작품에 가격도 매길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고분 벽화 '습지에서 사냥하는 네바문' (기원전 1350년경)

맞서는 예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비디오와 행위예술 등 다양한 새로운 형식에 메시지를 담아 내고 있다.

이처럼 책은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예술을

망라한다. 저자는 모든 역사의 과정에서 예술의 흔적을 살피며 예술사를 넘어 광범위한 공동체와 세상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소소의책·2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 곳 어휘력

박선주 지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다. 여기서 헛갈리는 어휘가 '가죽'이다. 어떤 이는 '가죽'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이는 '거죽'이라고 한다. 두 어휘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동물의 몸을 감싸고 있는 질긴 껍질을 말하고 후자는 물체의 겉 부분을 이른다. 가공해 만든 물건을 의미할 때도 '가죽'이라고 쓴다. 소가죽, 악어가죽이 그러한 예다. 반면 물체의 겉부분을 말할 때는 '거죽'이라고 한다. 가방 거죽, 책 거죽은 그 물체의 겉부분을 의미한다.

날마다 우리는 수많은 어휘를 사용해 표현하고 말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얼마나 적절한 어휘를 쓰고 있을까.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또 얼마나 적절한 어휘를 구사하고 있을까.

EBS '평생학교'에서 맞춤법 강의를 진행했으며 '몰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맞춤법 & 띄어쓰기 100'의 저자 박선주씨가 펴낸 '한 곳 어휘력'은 어휘의 디테일을 다룬다. 저자는 말의 내용보다 글의 형식보다 문해력을 결정하는 것은 어휘에 있다고 강조한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갑질'과 '곱질'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 둘 다 모두 '어휘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을 뜻한다. 그러나 '곱질'은 뜻을 하나 더 갖고 있다. '일정한 수나 양이 그만큼 거듭됨을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가 그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은혜를 두 갑절로 같다'는 부자연스럽다. 그보다 '은혜를 두 곱절로 같다'가 훨씬 자연스럽다. '곱질' 앞에는 수를 써도 되지만 '갑질' 앞에는 수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어휘의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어휘의 한 곳 차이가 결국 내가 쓰는 말과 글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라고 강조한다.

<매일경제신문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다가오는 영화들

라제기 지음

영화를 통해 우리 삶과 사회의 단면을 예리하게 읽어내는 한국일보 영화전문 기자 라제기의 신작 '다가오는 영화들'이 출간됐다.

'질문하는 영화들', '말을 거는 영화들' 시리즈에 이은 이번 신작은 최근 10년간 개봉돼 많은 사랑을 받았거나 비록 주목받지는 못했어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남긴 영화 27편을 골라 소개한다.

책은 '균형', '정의', '의심', '인생', '오만과 편견', '연결' 6가지 주제를 핵심 키워드로 담아 영화를 소개한다.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균형에 대해 다룬 '원 세컨드', '수프와 이데올로기', 정의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하는 '더 배트맨', '동주', 인생을 둘러싼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 '노매드랜드', '인생은 아름다워' 등을 통해 독자들의 깊은 사유를 이끈다.

'더 배트맨'은 히어로물보다는 탐정 추리극 형식을 도입한 범죄물에 가까운 영화다. 배트맨의 영웅적 면모보다는 어설픈 인간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스스로 선인지 악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고뇌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화 '돈 룩 업'은 겉으로만 보면 험성 충돌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재난 영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독하게 냉소적이고 풍자적이다. 지구와 충돌 위기에 놓인 행성을 대하는 정치계와 언론, 기업, 대중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눈앞에 닥친 기후 위기를 외면하는 인류의 모습과 닮아 있다.

"때로는 영화라는 창구 앞에 장애물이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을수록 장애물은 높고 많아지지만, 아는 게 많으면 장애물은 사라지고 창구는 넓어집니다. 영화는 세계 지적 도전장을 던지기도 하지만 함께 즐기며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세계 '다가오는' 매체입니다." <북트리거·1만6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길 위의 삼보일배, 길 위의 오체투지(전 2권)

(사)세상과함께 역류

길 위에 온몸을 내던진 채 오체로 투지하고, 삼보 일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2003년 3월, 한국사에서 처음 보는 기도이자 순례가 시작됐다. 당시 불교와 천주교 및 원불교, 기독교 4개 종단의 성직자인 이희은 목사, 김경일 교무, 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등이 모여 새만금 해항 갯벌에서 비폭력 저항을 위한 삼보일배를 이어갔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전종훈, 문규현 신부 등이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이라는 기치 아래 오체투지를 계속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부터 계룡산, 임진강 망배단으로 향하는 355킬로미터 여정은 200일에 걸친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이들의 노정을 기록한 책이 나왔다. 비영리 사단법인 세상과함께가 엮은 '길 위의 삼보일배', '길 위의 오체투지'는 새만금에서부터 광화문으로 향했던 순례, 지리산에서 임진각으로 떠났던 고행의 기록이다.

편집팀은 순례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인터뷰, 사진, 영상 등을 토대로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 12권을 발간했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완성시켰다.

'삼보일배'는 순례단 대열로부터 지도, 일정 개요 등 순례단이 거쳤던 여정이 담겨 있다. 생명의 원천인 새만금 갯벌에서부터 생명·평화의 여정을 펼쳤던 전 과정은 일반인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준다. 순례단은 '지내'처럼 기어 '자벌레'와 '갯지렁이'와 눈 마주치는 길을 걸었다. 1킬로미터 가는 데 두 시간 이상이 소요된 고행길이었지만, 공동체 정신을 통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했다.

책속 오체투지 1~2차 기록도 흥미롭다. 모든 여정은 종파를 초월해 탐진치(貪瞋癡·욕심과 성냄, 어리석음)를 버우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푸른역사·전권 4만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